

이번엔 음주운전 사고 빙상계, 바람 잘 날 없다

연이은 숨방망이 징계에 '학습 효과' 없어

김민석 등 음주운전 관련자 징계 수위에 눈길

빙상계에 바람 잘 날이 없다 이번에는 스피드스케이팅 간판 스타인 김민석(성남시청)이 대표팀 훈련 중 음주를 한 것도 모자라 음주운전을 하다 선수촌 내에서 사고를 일으켰다.

빙상계에서는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폭행, 성추행, 째짜미라 부르는 승부조작, 선수촌 내 음주, 불법 스포츠 도박 등 종류도 다양하다.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직후에는 째짜미 논란이 불거져 눈살을 찌푸리게 했고, 2014년 소치동계올림픽을 앞두고는 징비 담당 코치가 성추행 의혹으로 퇴출되는 일이 벌어졌다.

2015년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쇼트트랙 국가대표 A군은 외부에서 술을 마신 뒤 숙소로 들어와 추태를 부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2016년에는 쇼트트랙 선수 5명이 불법 스포츠도박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됐다. 그해 3월에는 미성년자가 포함된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상비군 선수 일부가 합숙훈련 중 몰래 숙소를 빠져나가 술을 먹다가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직전에는 조재범 전 쇼트트랙 대표팀 코치가 심석희(서울시청)를 폭행한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었다. 이후 재판을 통해 조 전 코치가 심석희에게 성폭행까지 저지른 사실이 공개돼 충격을 안겼다.

2019년 2월에는 쇼트트랙 남자 대표팀의 A가 쇼트트랙 여자 대표팀 선수를 만나기 위해 진천선수촌 여자 숙소 등에 무단으로 출입했다가 발각됐다.

같은 해 8월에는 스피드스케이팅 대표팀 선수 5명이 태릉선수촌 숙소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되기도 했다.

이후 잠시 잠잠했던 빙상계에 올해 또 파문



김민석

이 일었다. 스피드스케이팅 간판 스타인 김민석(성남시청)이 다른 곳도 아닌 선수촌 내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것.

김민석은 동료 선수 3명과 22일 밤 술을 마신 뒤 동료 선수들을 태우고 진천선수촌 내에서 운전을 하다가 도로 보도블록 경계석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에 앞서 김민석과 정재웅(성남시청), 정선교(스포츠토토), 정재원(의정부시청)은 진천선수촌 근처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김민석의 차량을 타고 선수촌으로 돌아왔다. 당시 운전자가 누군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이후 숙소에서 쉬던 김민석과 정재웅 정선교는 쇼트트랙 국가대표 박지윤(의정부시청)의 연락을 받고 웰컴센터로 이동해 시간을 보내다가 숙소로 돌아오면서 사고를 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2022년 베이징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1500m에서 2연속

동메달을 딴 김민석의 음주운전 사실은 적잖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다른 선수도 음주운전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구성원들의 안일한 인식이 빙상계에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성적 지상주의' 속에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숨방망이 처벌을 하다보니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가 없었다.

2016년 미성년자 음주로 물의를 빚은 스피드스케이팅 상비군 선수들에게 해당 시즌 훈련 제외와 사회봉사 활동 50시간의 조치만 내렸다. 2019년 여자 숙소를 무단 출입한 선수는 출전금지 1개월 처분을 받는데 그쳤다. 2019년 선수촌 내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된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5명은 자격정지 2개월만 받았다.

사건사고로 물의를 빚은 선수들은 가벼운 징계를 소화한 뒤 방관에 돌아왔고, 각종 국제대회에 출전하면서 보란듯이 활약했다.

이를 본 선수들에게 '학습 효과'가 있을리 만무했다. 선수들은 문제를 일으켜도 선수 생활에 큰 지장이 없다는 인식을 가지게 됐고, 도덕적 해이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2년 넘게 관리체였던 대한빙상경기연맹은 2020년 말 윤홍근 회장을 새롭게 선출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지난해 초 각종 사건사고를 근절하겠다고 연맹 운영 자정 결의문을 채택했다. 당시 엄격한 징계 양정기준을 적용해 인권 침해 및 각종 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을 비롯한 스피드스케이팅,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들의 이번 징계에 눈길이 쏠리는 이유다. 또 숨방망이 징계가 되풀이된다면 선수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는 힘들다.

빙상연맹은 이번 음주운전 사고에 연루된 선수들의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일단 27일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 개최 여부 등을 판단할 계획이다. /뉴시스

프로야구 원년 빛나다

박철순 · 이만수 · 백인천 · 김성한 등
KBO리그 40주년 기념 레전드 40인 선정



프로야구 원년인 1982년을 빛낸 박철순(OB), 이만수(삼성), 백인천(MBC), 김성한(해태)이 KBO리그 40주년 기념 레전드 40인에 선정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전문가 투표(85%)와 팬 투표(20%)'를 합산한 결과, 박철순이 11위, 이만수가 12위, 백인천이 24위, 김성한이 25위로 40인 레전드에 이름을 올렸다고 25일 밝혔다.

KBO는 지난 16일 레전드 40인 중 원년을 빛낸 박철순 · 이만수 · 백인천 · 김성환을 공개했다. (사진=KBO 제공)

이만수는 전문가 투표에서 130표(86.7점), 팬 투표에서 52만9649표(9.70점)를 받아 총 76.36점으로 12위에 자리했다.

백인천이 1982년 기록한 타율 0.412는 40년간 아무도 범접하지 못한 불멸의 기록으로 남아있다. 40년 역사상 KBO 리그 유일무이한 4할 타자이자 감독 겸 선수다.

그가 남긴 강렬한 인상은 전문가 투표 107표(54.87점), 팬 투표 30만3752표(5.56점) 총 60.43점, 24위라는 지표로 나타났다.

'원조 이도류' 김성한은 프로 원년 투타를 오가며 활약했다. KBO리그에서 한 시즌에 두 자릿수 승수(10승)와 두 자릿수 홈런(13개)을 동시에 기록한 선수는 김성한이 유일하다. 김성한이 정규시즌 MVP 2회(1985·1988년), 골든글러브 6회(1985~1989년, 1991년)를 차지하며 해태에서 14시즌 활약하는 동안 해태는 7차례나 한국시리즈 정상을 차지했다.

김성한은 전문가 투표 98표(50.26점), 팬 투표 49만3923표(9.14점)를 얻어 총 59.40점을 획득, 25위를 마크했다. /뉴시스

박철순은 전문가 투표에서 156명 중 134명(88.72%)에게 표를 받았고, 팬 투표에서는 109만2432표 중 50만1817표(9.30점)로 총 78.02점을 획득, 40명의 레전드 중 11위에 올랐다.

'킬러' 이만수는 1982년 3월 27일 동대문 야구장에서 열린 MBC와의 KBO리그 개막전에서 1회 2루타를 날려 KBO리그 첫 안

타와 타점을 냈다. 5회에는 담장 밖으로 타구를 보내며 KBO리그 첫 홈런이라는 역사를 썼다. 1984년에는 타율 · 홈런 · 타점 3개 부문을 석권, KBO리그 최초 타격 3관왕에 올랐다.

이만수는 전문가 투표에서 130표(86.7점), 팬 투표에서 52만9649표(9.70점)를 받아 총 76.36점으로 12위에 자리했다.

'원조 타격왕' 백인천이 1982년 기록한 타율 0.412는 40년간 아무도 범접하지 못한 불

멸의 기록으로 남아있다. 40년 역사상 KBO 리그 유일무이한 4할 타자이자 감독 겸 선수다.

그가 남긴 강렬한 인상은 전문가 투표 107표(54.87점), 팬 투표 30만3752표(5.56점) 총 60.43점, 24위라는 지표로 나타났다.

'원조 이도류' 김성한은 프로 원년 투타를 오가며 활약했다. KBO리그에서 한 시즌에 두 자릿수 승수(10승)와 두 자릿수 홈런(13개)을 동시에 기록한 선수는 김성한이 유일하다. 김성한이 정규시즌 MVP 2회(1985·1988년), 골든글러브 6회(1985~1989년, 1991년)를 차지하며 해태에서 14시즌 활약하는 동안 해태는 7차례나 한국시리즈 정상을 차지했다.

김성한은 전문가 투표 98표(50.26점), 팬 투표 49만3923표(9.14점)를 얻어 총 59.40점을 획득, 25위를 마크했다. /뉴시스

김연아, 5세 연하 '포레스텔라' 고우림과 10월 결혼

2018년 올댓 아이스쇼서
처음 만나... 3년여 간 교제

전 피겨스케이팅 스타 국가대표 선수 출신 김연아(32)가 5세 연하인 크로스오버 그룹 '포레스텔라' 멤버 겸 팝페라 가수 고우림(27)과 결혼한다.

25일 김연아 소속사 올댓스포츠와 고우림 소속사 비트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두 사람은 오



김연아



고우림

는 10월 하순 서울 모처에서 웨딩마치를 올린다.

양 측은 "결혼식은 가까운 친지와 지인들을 모시고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결혼 날짜와 예식 장소를 알리지 않는 점, 많은 팬분들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의 너른 양해를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양 측에 따르면 김연아와 고우림은 지난 2018년 올댓스케이팅 아이스쇼 축하 무대를 계기로 처음 만났다. 당시 포레스텔라가 초청돼 공연했다. 이후 두 사람은 3년여 간 교제했고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됐다. /뉴시스

순창 장류배 전국 남녀 배구대회 성료

순창군에서 제9회 순창 장류배 전국 남녀 배구 대회를 개최해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대회는 순창군체육회 주최하고, 순창군배구협회 주관하며 전북도와 순창군이 후원해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 순창군 국민체육센터 등 6개 구장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하여 2019년 대회 개최 이후로 개최되지 못하다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됨에 따라 3년 만에 개최하게 됐다.

배구대회는 참가팀 전원 순수한 아마추어 등 호인으로 구성됐으며 남자부, 여자부, 남자장년부터 나뉘어 진행됐다.

참가팀은 87개팀으로 1,000여명이 순창을 방문해 순창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순창군은 순창군배구협회와 협력을 통한 철저한 시설 방역관리로 지역 내 확산 방지는 물론 안전한 대회를 치르는 데 만전을 기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손 씻기 · 마스크 착용... 개인 방역 수칙 준수

부안군의회

'군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선진의회'

 김광수 의장	 이현기 부의장	 김두례 의회운영위원장	 김원진 자치행정위원장	 박태수 산업건설위원장
 이용님 의원	 박병래 의원	 김형대 의원	 이강세 의원	 이한수 의원

포털사이트에서 을 검색하세요

https://council.buan.go.kr